

교환학생 귀국보고서

파견국가 : 헝가리

수학대학 : 부다페스트 기술경제대학교

수학기간 : 2015년 1학기

성 명	강 명 훈
학 번	201**472
학 과	전자공학과

1. 서론

지난 1월, 출국을 앞두고 교환학생 선배들의 귀국보고서를 모두 훑어본 후에 부다페스트로 다녀왔던 사람들에게 이것저것 질문공세를 퍼부었던 내 모습이 생각난다. 그 때의 내가 사소한 것 하나하나까지 꼼꼼하게 준비하려 했던 이유는 교환학생으로 떠나기 전의 설렘보다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한 불안함이 컸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

이 보고서에서는 먼저 출국 전부터 부다페스트에 도착하기까지의 과정과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에서 공부했던 기억을 되짚어 보고, 대학생활과 현지생활에서 겪었던 것들 중에서 부다페스트로 출국을 앞두고 있는 학우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써내려 갈 것이다.

끝으로, 한 학기동안 교환학생으로서 느낀 생각들을 정리하면서 나의 소중한 추억을 다시 한 번 다듬고 싶다.

2. 본론

출국준비과정

교환학생 발표가 끝나고 가장 서둘러서 했던 것은 바로 항공권 예약이다. 부다페스트대학에서 입학허가가 떨어지면 입학허가서와 개강 전 일정에 관한 서류를 받을 수 있다. 보통 개강 일주일 전 교환학생들은 위한 오리엔테이션이 준비되어있다. 이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참석해야하므로 적어도 오리엔테이션 하루나 이틀 전에는 미리 도착하여 학교까지 가는 길을 익혀두면 좋은 것이다. 나는 모스크바를 경유해서 가는 러시아 항공을 이용했는데 왕복 비용은 대략 85만원이었다. 듣기에 러시아 항공이 수화물 규정이 까다롭고 분실되는 경우가 잦다고 들었지만 별문제가 없었다. 다음으로는 출국 전 부다페스트대학으로 수강신청 목록을 작성해서 제출했다. 부다페스트대학 공식홈페이지에서 수강목록을 확인하고 별도의 양식을 작성하는 것이다. 곧이어 설명하겠지만 이 때 작성하는 수강목록은 아무런 소용이 없으니 그저 어떤 과목이 개설되었는지 확인만 하면 될 것이다.

현지적응과정

늦은 밤에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다. 출입국 심사는 입학허가서를 제시하고서야 입국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었고 다행히 트램 종점까지 가는 버스는 운행을 해서 탔지만 트램은 운행이 종료되어 거기서부터 택시를 타고 미리 예약해둔 호스텔로 갔다. 하루빨리 플랫을 구하고자 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메일, 채팅, 전화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다. 발품을 팔수록 좋은 위치, 좋은 시설, 좋은 가격의 플랫을 구할 수 있다. 물론 부다페스트 대학에서도 플랫서칭데이(flat searching day)를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보다 간편하게 플랫을 구할 수 있다. 하지만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다.

주거문제가 해결될 무렵이면 이미 많은 학교행사과 파티에 참가했을 것이고 거주증 신청을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그 동안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현지사정에 노련히 적응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또한 부다페스트 곳곳에 시티은행이 많이 퍼져있기 때문에 큰 수수료를 내지 않고 돈을 인출할 수 있다. 오기 전 필요한 서류중 하나인 계좌에 있는 금액을 증명하는 서류의 경우에

1달 이전의 서류일 경우에는 거주증 발급서류 부적합으로 판정하는 경우도 있으니 출국직전에 서류를 발급 받는 것을 추천한다.

학사일정 및 수강정보

9월 첫째주 일주일간의 오리엔테이션 기간이 끝나고 9월 둘째주부터 본격적이 수업이 시작된다. 본교의 원스톱서비스와 마찬가지로 부다페스트대학에는 NEPTUN시스템이 있는데, 오리엔테이션 중에 이용법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이곳을 통해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고 나중에도 수강변경 및 취소를 위해서는 이용법을 반드시 숙지하길 바란다.

부다페스트기술경제대학은 수업이나 시스템적인 면에서 좋은 점이 참 많다.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는 강의를 들을 때 인원이 적었다는 점이었다. 제일 적었던 과목은 5명에서 수업을 들었다. 물론 학생 수가 많은 수업도 있지만 30명이 채 넘지 않았다. 적은 인원으로 전공수업을 듣기 때문에 수업집중도가 좋다. 앞자리 경쟁도 없어 여유롭게 수업시간에 맞춰 도착해도 좋은 자리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 이곳은 기본적으로 중간고사라는 개념이 대부분 기말고사를 치기위한 쪽지시험의 느낌이 강하다. 물론 중간고사를 일정점수이상 넘지 못하면 기말고사자체를 칠 수가 없다. 이 곳 시스템의 장점인 재시험 재도는 시험에 fail을 한 학생들이 여러 번 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해준다. 때문에 자기점수가 마음에 들지 않은 학생은 시험에 통과를 했더라도 시험을 더 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재시험을 치를 수록 시험의 난이도가 증가하므로 한 번에 통과하는 것을 추천한다. 한국과는 다르게 수업 중에 궁금증이 생기면 일반적으로 바로바로 질문과 답 그리고 토론 혹은 토의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점은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하는 좋은 장점인 것 같다. 이러한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면 주저 않고 궁금증이 생기면 물어봐야한다. 처음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질문을 할 수 있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수학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BME의 경우 출석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출석체크의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어서 좋았다. 수업을 빠지거나 지각을 해도 성적에 불이익이 없다. 그래서 학생들이 수업을 빠지는 경우가 많으나 그건 본인의 선택이다. 수업을 듣지 않고도 시험에 통과할 자신이 있어 빠지거나 부족한 부분만 듣는 학생들도 많았다. 그러나 단지 귀찮거나 놀기 위해 들어가지 않는다면 결국 본인의 손해다. 또 강의 중에 중요한 공지사항을 해주시는 교수님도 계시기 때문에 웬만해선 들어가는 것이 좋다.

대학생활정보

부다페스트대학에서는 교환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아주 다양하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하자마자 실시되는 오리엔테이션부터 발라톤호수로 떠나는 신입생캠프와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등 인접국가로 떠나는 1박2일 또는 2박3일의 여행, 부다페스트 시내에서 열리는 다양한 파티 외에도 다양한 행사가 있다. 페이스북에 있는 교환학생 페이지를 구독해놓으면 하루가 멀다 하고 어마어마한 초대장이 도착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부다페스트는 해외여행을 다니기에 최적의 도시다. 밤새 운행하는 시내 트램과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기차역이나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라이언어, 이지젯, 위즈어 등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 공항은 시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여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우분이라면 매일 밤 믿을 수 없이 저렴한 비행기 표를 구매하느라 노트북 앞을 떠나기 힘들 것이다.

여행

헝가리는 동유럽 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인접국가와의 교통이 편리하다. 그 중에서도 부다페스트는 헝가리의 수도이기 때문에 더욱 접근이 편리해 주말이나 국경일을 이용해 주변국가로 여행을 다니기가 정말 좋았다. 관광하기 좋은 헝가리내 주변 도시로는 셴덴트레, 비셰그라드, 에스테르곰, 에게르 등이 있고 대부분 버스 혹은 기차로 1~2시간 내외이다. 또한 헝가리는 유럽의 중앙에 위치해있어 주변국으로의 여행도 최적의 조건이다. 밤새 운행하는 시내 트램과 버스가 있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나 늦은 밤에도 기차역이나 공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라이언에어, 이지젯, 위즈에어 등 저가항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다페스트 공항은 시내에서 지하철 및 버스를 이용해서 이동할 수 있다. 여행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학우분이라면 매일 밤 믿을 수 없이 저렴한 비행기 표를 구매하느라 노트북 앞을 떠나기 힘들 것이다.

3. 결론

귀국보고서를 쓰면서 힘들었던 전공수업, 많은 발표를 통해 한국을 알릴 수 있었던 수업, 유럽을 여행하면서 가슴에 새긴 너무나도 소중한 추억들, 늦은 밤이면 술병을 들고 만났던 친구들. 끝없이 나열되는 추억들을 되새기자니 즐겁다가도 결국엔 아쉬움이 남는 게 사실이다. 처음에는 가야하나 말아야하나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다. 아는 것도 거의 없었고 확신도 서지 않았었는데 한 학기를 끝나치고 온 지금은 굉장히 잘 선택한 결정이었다는 확신이 든다. 많은 것을 경험하였고 지금은 자신감으로 꼭 차있다.

마지막으로 교환학생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좀 더 능동적이고 자신감 있게 활동하라고 조언해 주고 싶다. 한국 학생들의 경우 소극적이거나 자신감이 많이 부족해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꺼려하는 경우가 많은데 교환학생의 목적은 새로운 경험하고 시도해 본다는 목적이 큰 만큼 이를 계기로 삼아 능동적으로 어떤 일을 이끌고 주도해 본다면 아마 좋은 경험이 될 것이고 더불어 자신감도 가지게 될 것이다.